

2024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The Friendliest》

2024. 07. 19 - 09. 29



김순임
김태동
노진아
박충의
범진웅
변웅필
윤석남
이우성
이의재
이지영
장성은
정고요나
진 인이 나래
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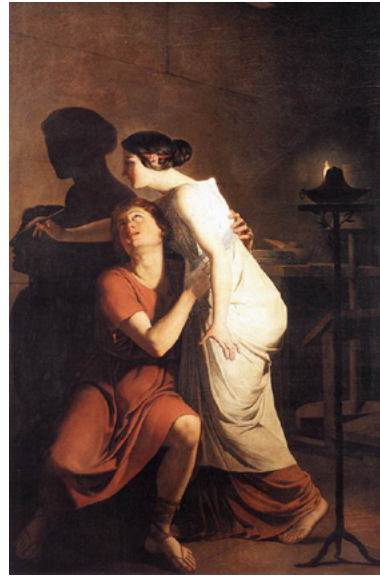


Kim Soonim
Kim Taedong
Roh Jinah
Park Chungui
Beom Jinyong
Byen Ungpil
Yun Suknam
Lee Woosung
Lee Euijae
Lee Jiyoung
Chang Sungeun
Jung Goyona
Jin Yinyi Narae
Ham Jin

“인간은 많은 것이 없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 더불어 사는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카를 루트비히 뢰르네(1786-1837)¹

그림의 기원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대(大) 플리니우스²가 『박물지 Naturalis Historia』 35권에서 그림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고대 그리스 도시 코린토스에 부타데스라는 도공이 살았다. 그의 딸은 한 청년을 사랑했는데, 그가 곧 긴 여행을 - 아마도 전쟁터로 - 떠나게 되었다. 연인에 대한 기억이나마 붙잡고 싶었던 그녀는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고 벽에 비친 연인의 그림자를 따라 윤곽선을 그려둔다. 플리니우스는 청년의 그림자 윤곽선이 인류 최초의 그림이라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18세기 신고전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 중 조제프 브누와 쉬베³의 그림이 큰 인기를 얻었다. 사랑의 영원함을 바라는 마음이 ‘그린다’는 행위, 즉 예술 행위를 이끌어내었다는 플리니우스의 이야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매료되었다.



조제프 브누와 쉬베
그림의 기원 (부분)
The Origin
of Painting⁴ 1791

캔버스에 유채
267×131.5cm
그리닝 미술관 소장,
브뤼헤, 벨기에

«내게 다정한 사람»

2024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The Friendliest»(2024.07.19 - 09.29)은 장성은의 사진 작품 <비스콘티 길>로 시작된다.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막 벗어난 우리에게 작품 속에서 몸을 맞대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불편하다. 비스콘티 골목길의 폭은 사람 몸통 두께 19단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미있지만, 신체를 밀착시켜 줄지어 서있는 장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거리두기’를 행동 준칙으로 삼아 온 2024년의 우리들에게는 감염의 공포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장성은
비스콘티 길
Rue Visconti 2006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150.4cm

비스콘티 길을 지나 본격적으로 전시장에 들어서면 특정한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배제하고 제한적인 선, 면, 색만을 깔끔하게 사용한 변용필 작가의 <Someone> 시리즈를 만나게 된다. 유려하게 표현된 ‘누군가(Someone)’는 특정 모델 없이 그려진 인물화로,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다. 그 옆에, 변용필 작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강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법진용 작가의 인물화들이 자리한다. 법진용 작가에게 인물화는 가족, 친구, 동료 예술가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저장해 주는 기억 장치이다. 한편, 이외재 작가의 노인 초상 2점은 동양화 정밀묘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작품은 질곡의 세월을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온 선배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헌사이다.

벽을 돌면 도시나 휴양지에서의 한 때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린 정고요나의 회화들이 있다. 현대인의 일상을 아름답게 포착한 작품들은 작가가 SNS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해석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과시하는데 몰두하며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훑쳐보는 현대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탁월하게 아름다운 빛과 물의 표현을 통해 반어적으로 꼬집는다. 가까이에는 성인 남성 등신대의 흰색 인물 조각상이 있다. 김순임 작가의 작품이다. 조각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목직하고 견고한 재료들과 달리, 작품의 재료는 형겅과 깃털 같은 가벼운 것들이다. 하지만 가벼운 소재와 달리 작품의 규모는 장엄하다. 작가가 뉴욕에서 레지던시 활동을 할 당시에 만난 어느 이민자를,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존재감은 없는 비둘기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이우성 작가는 카툰적 기법과 사실적 표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캔버스 그림은 물론 걸개 그림도 그린다. <엃치락뒤치락>이라는 작품은 3대가 뒤섞여 즐거워하는 가족 소풍의 한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는 이들마저 매우 유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지영 작가는 연필로 큰 화면을 채우는 매우 섬세하고 밀도 높은 작품들을 보여준다. <Stage>라는 작품은 인간의 삶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배우가 올라가서 주어진 배역을 소화해내야 하는 연극 무대에 비유한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머리 모양 로봇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가가서 말을 걸면,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대화를 시작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일찌감치 작업에 활용해 온 노진아 작가의 작품으로, 로봇이 과연 인간과 진정한 의미의 감정 소통을 하게 될지를 묻는다. 맞은편 벽면의 인물 연작은 우리나라 페미니즘 미술의 거장으로 존경받는 윤석남 작가의 <벗들의 초상>이다. 작가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본인들도 각자의 길을堂堂하게 걸어온 동료 화가, 가수, 시인,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시의 제목과 주제에 매우 잘 부합하는 작업들이다.

돋보기로 봐야 잘 보일 정도로 작은 조각 작품을 만드는 합진 작가는 인물, 동물 뿐만 아니라 미물이라 불리며 하찮게 여겨지고 차치 지나쳐버리기 쉬운 작은 생명체들에게 관심을 쏟는다. 큰 숲에 들어가도 높은 나무를 올려다보기보다 돌 밑에 숨어 있는 이끼와 벌레들을 살피는 작가의 심성과 어울리는 작품들이다. 백령도 출신 박충의 작가는 점점지대에 살아 불안을 상시 내재하고 있으나, 기실 그 일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 그닥 다르지 않은 백령도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고도 따뜻하게 표현하였다.

¹ 『현실 없는 현실-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불안』, 요아힘 바우어 지음, 김희상 옮김, 북복서가, 2024, 33쪽

² 대(大)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 23-79), 서기 1세기에 활동한 로마 제국의 정치인, 작가, 박물학자, 해군 제독으로 자연사, 지리, 동식물, 광물, 의학, 예술 등 당시의 과학적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서적 『박물지 Naturalis Historia』 전 37권을 저술하였다. 이 중 제 35권이 그림에 관한 책이다.

³ 조제프 브누와 쉬베(Joseph Benoit Suvée, 1743-1807), 18-19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신고전주의 화가이자 교육자로 활약한 벨기에 출신의 화가

⁴ <그림의 발명 The Invention of the Art of Drawing>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김태동 작가의 <Wanderer(방랑자)> 시리즈는 인천의 고려인 밀집지역인 연수구 함박마을의 사람들과 풍경을 찍은 사진 작품이다. 이주의 관문 도시 인천이 과연 시가 표방하는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과 현대의 도시인지 묻게 된다. 다문화, 다양성, 상호 존중과 인정에 관한 이야기는 **진 인이 나래** 작가의 <쿠킹 비디오> 연작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다. 3분여 가량의 짧고 경쾌한 영상들은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교양 프로그램 같지만, 나레이터의 대사에는 차별과 통제가 만연한 배타적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와 메타포로 가득하다.

전시의 마무리는 다시 **장성은**이다. 작품 속 등장 인물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동작을 취하고 있다. 연극적 상황을 연출한 설정 사진들이다. 인물의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장면의 조형적 균형이 독특하여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다.

유전자는 협력과 소통을 좋아한다

2024년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를 더 편리하고 편안한 미래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낙관과 함께,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거나 심한 감시와 관리 체계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기술에 잠식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온라인 소통에 몰두할수록 커져가는 개인의 고립감과 우울감, 만연하는 사이버 범죄, 기후 변화 등 놀라운 기술 발전의 이면에 많은 폐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즉 디지털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대안과 해법으로 아날로그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이 필요하다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사람은 인공지능 기계와 달리, 살아가기 위해 ‘외부 현실’과 교류해야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가 없어도 잘 작동한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며 접촉하는 외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쪽은 더불어 사는 사람, 곧 주변 인물들이다.⁵

그렇게 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The Friendliest>은 ‘사람’에 주목하고 관심을 둔다. 하지만 생태계의 독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나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감과 공명을 실천하는 휴머니즘, 친화력을 장착하고 협력적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유전자 속 다정함을 키워가며 진화해 온, 그리하여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의 후손⁶ 인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14명의 작품 속에 다양한 인물, 사람들이 등장한다. 작가들은 부타데스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애정과 사랑, 관심을 담아 인물들을 표현했으리라. 진 인이 나래 작가의 영상 작품 <세상의 모든 꽃들>⁷의 마지막 대사를 인용해본다.

“어떤가요? 이 모두가 다 아름답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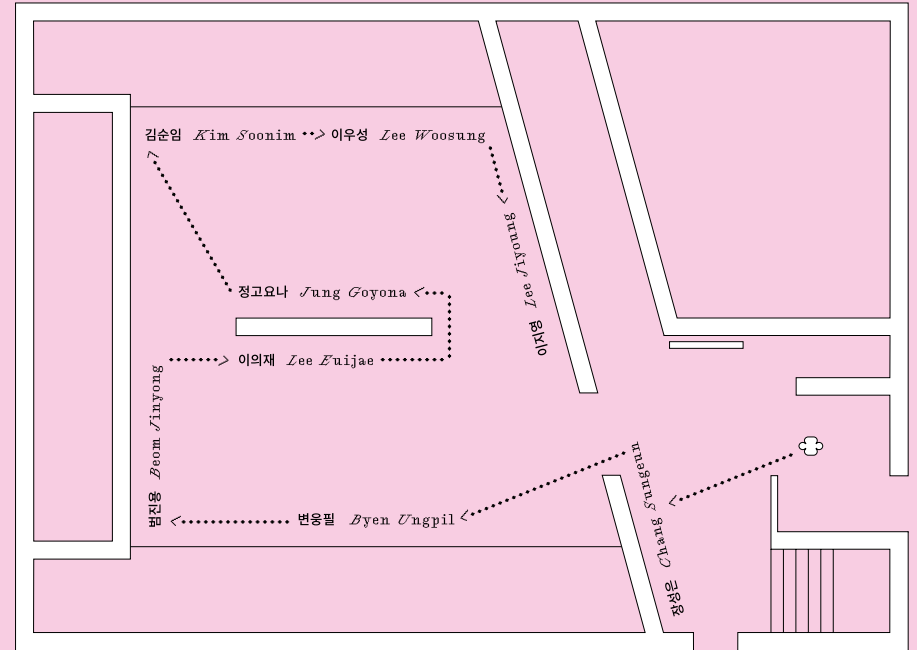
⁵ 위의 책, 37-39쪽

⁶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Survival of the Friendliest』(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지음, 이민아 옮김, 박한선 감수, 디플릿, 2021)는 적자생존 가설의 오류를 짚어가면서 8만년 전 여러 인간종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 남은 것은 인간이 다정함의 유전자를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⁷ 진 인이 나래_세상의 모든 꽃들, 2020, 단채널 영상, 2분 2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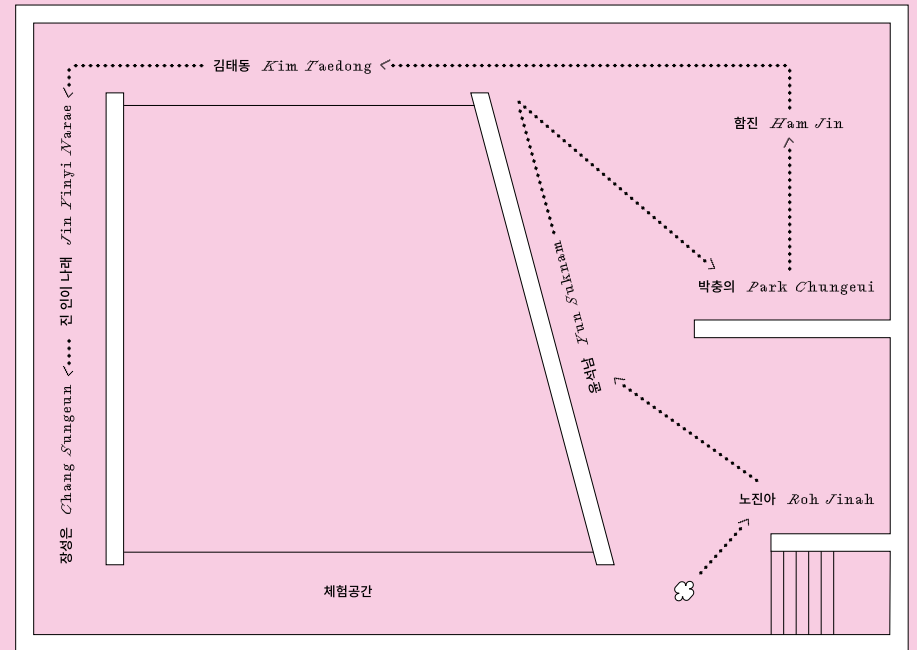
1층 전시실

1st Floor



2층 전시실

2nd Floor



Someone
2022

캔버스 위에 유채
180×150cm



변웅필 Byen Ungpil

변웅필 작가는 일찍이 자화상 시리즈를 통해 주제의식과 함께 데생력과 묘사력, 표현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돌연 자신의 강점을 포기하는 것인가 싶게 의외의 작업 양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주변을 의아하게 했다. *Someone* 시리즈가 자화상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깔끔한 선과 면에 제한적인 색만이 사용되어 회화의 평면성이 극대화되고 추상의 단계에 이르려는 듯 형태의 단순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작품의 단순한 형태만큼 쉬운 것 같은 작품의 제작 공정은 매우 정밀하고 엄정하다. 작가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채색 과정에서 조금의 얼룩이나 어긋남도 허용할 수 없기에 그렇다. 한번 시작된 채색 작업은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밤과 낮이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는다. 매끈한 표면과 유려한 선들이 지난한 창작 노동의 결과값이었음을 관람객은 눈치채기 어렵다.

극사실적 표현도 어렵지 않게 해내는 작가가 왜 이러한 생략과 축약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일까. 작품들은 허세에 찬 웅변을 거부하고 차분한 담소를 제안하는 것 같다. 작가는 우리에게 누군가(*Someone*)를 보여준다. “그보다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딱 그 단계에서. 누군가(*Someone*)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다. 작품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는 관람객이다. 보는 이로 말미암아 작품은 비로소 완전하고 본질적인 것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그림 속 인물들이 부드러운 영화미소로서 전하고 있다.

/글 이영리

변웅필(b.1970)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 뮌스터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 전공으로 석사와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했다. *«SOMEONE»*(서울 호리아트스페이스 2021/부산 아리랑갤러리 2018), *«변웅필 개인전»*(서울 갤러리조은 2014), *«옥림리 23-1»*(서울 UNC갤러리 2014), *«한 사람»*(서울 갤러리현대 원도우 2013), *«한 사람»*(부산 아리랑갤러리 2012),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 1&1/4»*(서울 갤러리현대 2009)와 10여회의 개인전과 100여회의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뮌스터대학 대상, DAAD외국인 학생 장학금, 쿤스트아스테프 미술상, 2005 아도 미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OCI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독일의 MARTA현대 미술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행정대법원 등이 있다. 더불어 지학사 중학교 미술교과서, 천재교육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미진사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등 국내 6종의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었다. 『그림 명상』, 『느낌의 미술관』 등의 표지를 비롯해 여러 단행본에 작품이 소개됐다. 현재는 강화도 작업실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범진용 Beom Jinyong

범진용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과 버려진 장소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풀들의 생명력을 그려왔으며, 무의식이 발현된 꿈의 내용들을 일기처럼 기록해왔다. 최근 작업에서는 가족, 지인, 동료작가 등의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과 함께 나눴던 소중한 순간들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지나간 시간 속, 찰나의 순간에 잠시 존재하고 사라지고 마는 그때의 사람들을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한다. 인물도 풍경과 같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어느 짧은 순간에 강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캔버스 안에 가득 담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미애>는 작가의 가족인 친누나를, <명탐정 고난>과 <인물> 시리즈는 창작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겪어온 동료 작가들의 모습을 서정적이고 때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들이다. 커다란 캔버스 천 위에 그린 <취한 낮>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삶과 예술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을 어느 즐거운 한때를 몽환적인 느낌의 숲속에서의 점심 식사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최근 개최한 개인전의 제목 <걷는 식물>(2024.04.12-07.14, 아트센터화이트블럭)은 10여년 동안 각 지역의 레지던시에서 작업하며 이주를 경험했던 작가 자신의 처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간 함께 작업하며 추억을 쌓았을 작가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 언젠가 잊혀지고 마는 순간들을 붙잡고 싶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글 이태현

범진용(b.1977)

범진용은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걷는 식물>(파주 아트센터화이트블럭 2024), <잠 못 들고>(천안 리각미술관 2019), <빈 곳에서의 폭동>(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8), <조용한 방>(인천 대안공간 돔 2017), <풀>(서울 갤러리림 2017)이 있으며, <방향감각>(청주시립미술관 2023), <2020 SPRING, SPRING, SPRING>(인천 우리미술관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수상 및 선정 내역으로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2019>, <3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2016>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2023), 서울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8), 인천아트플랫폼(2017) 등 여러 레지던시의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미애
2022

캔버스 위에 유채
53×41cm



엄마
2024

화선지에 수묵
190×227cm



이의재 *Lee Euijae*

이의재는 동양(한국)화가로 세밀한 수묵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엄마>는 아흔다섯의 친구 어머니 초상을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 지켜 보며 근현대 한국 여성들의 고된 삶에 연민을 느껴왔던 작가는 녹록지 않았을 그들의 삶을 수묵 고유의 색을 담아 붓으로 섬세하게 기록한다. 작가 세대의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받는 사회풍토 아래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기꺼이 본인들의 꿈을 접어 두었을 것이다. 작가는 그 시대의 어머니상으로 대표되는 친구 어머니의 초상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받았을 억압과 차별, 깊어진 주름만큼 굴곡진 삶의 애환을 작품 속에 녹여낸다.

반면 <장손>은 집안 장손이신 아흔다섯의 사촌 형님을 그린 그림이다. 가부장제도와 유교사상 아래 장손으로서 집안의 제사와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았을 사촌 형님의 얼굴은 굳게 다문 입술과 또렷한 눈빛이 강조되어 위엄있는 인상을 풍긴다. 작가는 어린 시절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제사를 지내시던 엄숙한 모습의 사촌 형님을 회상하며 장손으로서의 삶의 흔적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글 이태현

이의재(b.1958)

이의재는 인천 강화 출생으로 동양화(한국화)를 도제 교육으로 사사 받았다. 인천에서 40여 년간 활동하며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동양철학과 사상을 창작의 근거로 삼고 수묵화 위주의 한국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대학교 도서관, 인천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으며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988년 중앙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였다.

© euijaelee

정고요나 Jung Goyona

정고요나 작가의 회화 작품들은 현대 도시인이 누리는 일상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하고, 지인들과 파티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마도 중산층인- 현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장면 장면이 아주 화려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삶의 비루함이나 비극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도시 생활의 활기와 함께 나른함이 간간히 더해지는 정도다. 물과 빛의 표현이 탁월한 작가의 화력 때문에도 작품은 매우 세련되게 반짝이면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일상적 감성을 부드럽게 포착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는 작업의 소재로 SNS에 올라온 사진 이미지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미지 필터 앱을 사용하듯 본인만의 회화적 필터링을 거쳐 캔버스에 옮긴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하지 않은가. SNS에 자신의 구차한 일상을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만큼 작가가 선택하여 재창조하는 순간들은 화사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여유롭고 예쁜 일상을 상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반어적으로 묻고 있다. 일종의 진열장이 되어버린 소셜미디어의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타인을 훑쳐보는, 그러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당하는 현대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이다.

/글 이영리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지우 지음, 한겨레출판, 2020)

정고요나(b.197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최근 «Following, 부유하는 시선들»(서울 PEYTO 갤러리 2024)을 포함하여 1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여성성, 자기복제로서의 예술»(서울 EM갤러리 2023), «다중시선»(서울 금호미술관 2023) 등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8년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6년과 2014년 캔파운데이션 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끝
2024

캔버스 위에 유채
145.5×97cm





김순임 Kim Soonim

소년은 30살이 넘은 청년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이민자이고, 처음 이민 왔을 때 너무 가난하여 쓰레기통의 버려진 도넛이나 피자를 주워 먹을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스케이트보드가 뉴욕에서 그의 교통수단이고, 서른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뉴욕이라는 공간에 너무도 잘 적응하여 누구보다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2008년 작가가 그곳에 머물 때 ISCP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해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소비할 줄 아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도시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나쳐가는 사람들 속에 묻혀 있어 빛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저 그 공간의 풍경 같은, 그 공간 자체의 모습을 한, 그 공간이 된 사람이다. 그의 등에서 뿜은 깃털은 거창한 날개가 아니다. 바람을 타고 가벼이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드로잉 선이다. 나무뿌리나 넝쿨 줄기 같은 선들이 깃털과 함께 소년과 공간을 연결한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풍경이 되어버린 도시의 비둘기, 그러나 그 공간을 자신의 세계화한 도시의 성스러운 새,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비둘기 소년>이라 하였다.

/작가노트

김순임(b.1975)

김순임은 각 지역의 자연과 그로 인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자연과 자연으로서의 사람을 관찰하고 연결하고 시각화하여, 발견된 이야기들을 지역 특유의 자연 오브제 및 공간과 엮어 설치, 조각, 영상, 사진, 퍼포먼스, 드로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표현을 실험하고 있다. 2002년 이후 28회의 개인전, 설치와 평면, 영상작업 등 다양한 전시 형태로 350회의 프로젝트와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생태원과 <자연의 영토> 프로젝트와 전주문화재단 '예술로 그린 (green) 전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주 천변에서 두 해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에 살고 2024 전주 팔복예술공장에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작업하고 있다.

이우성 *Lee Woosung*

이우성은 친구, 미술계 동료, 지인, 가족 등 작가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잘 정돈되고 안전한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 거리와 시장, 공사장 펜스에 가벼운 천으로 그린 작품들을 매달아 설치하기도 한다. 현재의 작업이 동시대와 이어질 수 있는 연결성을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회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작가는 기억 속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느꼈던 분위기와 그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 본인들의 모습이 그려질 상상에 잠시 속쓰러움을 내비쳤던 그 찰나의 사랑스러운 표정들까지 모든 기억을 곱씹으며 그림에 담는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인 <큰 창문 옆에 서있는 두 사람과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 작품의 제목처럼 그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어딘가 경직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잘 차려입은 옷 아래로 보이는 먼지가 낀 운동화는 그들이 ‘이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작가와 두 인물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게 만든다. 다른 작품 <엣치락뒤치락>은 즐거웠던 가족 소풍의 한때를 추억하게 만든다. 참외와 수박, 김밥과 삶은 계란이 있는 배경 위로 즐거운 표정의 인물들과 반려견이 한데 엉켜있는 그림을 통해 가족에게 향하는 작가의 다정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어느덧 청년작가와 중년작가 그 사이에 위치한 이우성 작가는 국내외 굵직한 전시와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그 예술성과 가능성을 일찍이 인정받아 왔다. 그럼에도 어느 인터뷰를 통해 “나의 직업은 화가이며, 예술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데에서 앞으로 더욱 확장될 그의 작업세계를 기대하게 된다.

/글 이태현

이우성(b.1983)

이우성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평면전공 전문사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 <여기 앉아보세요>(서울 학교재갤러리 2023),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울 두산갤러리 2021),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서울 학교재갤러리 2017)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Time Lapse: 어느 시간에 탑승하시겠습니까?>(서울 페이스갤러리 2024), <Real DMZ 프로젝트: 체크포인트>(연강갤러리, 도라산전망대 2023/볼프스부르크 콘스트뮤지엄 2022),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서유록>(강릉동부시장 2023), <삶의 풍경: 오늘도 안녕하세요>(울산시립미술관 2023), <렌트>(서울 아마도예술공간 2022), <개인들의 사회>(부산현대미술관 2020-2021),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광주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8) 등이 있다.

엣치락뒤치락
2023

자투리로 만든 천 위에 아크릴릭 과슈
200×200cm



The Stage
2024

장지에 연필
140×130cm



이지영 Lee Jiyoung

이지영은 주로 종이에 연필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며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인간 ‘삶’의 다면적 모습들을 세밀하게 서술적으로 묘사한다. 2008년 <인물원 The Human Zoo>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그림들은 작가가 재구성한 공간인 인간 동물원에서 집, 연극의 무대로 그 배경이 변화해 왔다. 특정한 공간 안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회와 사회제도 안에 놓인 인간, 그들의 역할과 관계, 그 안에서 변화하는 인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The Stage>, <연출>, <흰 고백> 등 최근의 작업에서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설정하고 각자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로 존재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사회관계 안에서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단 한 번도 연습한 적 없는 다양한 배역을 맡은 우리는 그 역할의 반복적 수행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나간다.

/작가노트

이지영(b.1980)

이지영은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네 면의 집»(서울 갤러리 인 2022), «인물원-first apple»(서울 갤러리 밈 2017), «검은 인물원»(서울 아트스페이스 H 2013) 등이 있으며 «일인가구»(오산 오산시립미술관 2023), «연속과 분절»(서울 서울대학교미술관 2022), «소마드로잉-無心»(서울 소마미술관 2015), «한글꽃, 한글꿈»(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헬로우뮤지움, 미메시스아트뮤지엄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theo_leejiyoung

노진아 Roh Jinah

노진아는 2002년경부터 전통 조각과 뉴미디어를 접목하여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인간형 로봇 및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등 다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다. 그는 기술 문명의 발달 안에서 재정의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들의 기술 철학적 의미를 전시장에서 상호작용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기계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 출품하는 <히페리온의 속도 *The Velocity of Hyperion*> 와 <나의 기계 엄마 *Mater Ex Machina*>는 인공지능으로 관객과 대화하거나 표정으로 소통하는 작품이다. 계산기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을 완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치를 보일 때가 있다. 아직은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 생성임에도,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와 범위로 확장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각해 왔던 감정 소통마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

/작가노트

노진아(b. 1975)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rt & Technology* 석사를 거쳐 서강대학교에서 예술공학(*Art Technology*) 박사를 졸업했다. 백남준 아트센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현대미술관 등 대형 기획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 중이다.

히페리온의 속도
2022

AI 기반 인터랙티브 두상
140×140×180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Hakgojae Gallery

윤석남 Yun Suknam

윤석남은 한국 페미니즘 미술을 대표하는 1세대 작가로 마흔이 넘는 나이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인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머니의 초상을 그린 회화로부터 시작하여 나무 조각, 종이를 오리고 붙이는 작업, 설치 등 끊임없이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최근 작가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을 그려오며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에 세상에 맞선 위대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조명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벗들의 초상>을 그린 회화와 반려견 조각이 함께 있는 <신가족>을 선보인다. 작가로서의 삶을 지지해 준 고마운 동료들인 시인과 화가, 가수 그리고 오랫동안 작가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관리해준 ‘박여사’ 등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온 여성들을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려냈다.

작가는 2016년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 씨』(사계절, 2016) 그림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작가의 그림과 글이 실린 이 책에는 작가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작가의 삶이 담겨있다. 작가는 ‘한 인간으로서 힘들었던 시기에 마치 일기처럼 고백한 이 글과 그림들로 삶을 이해하려 했다’고 말하며 일상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주변을 향하는 작가의 그 시선에는 다정함이 가득 담겨있다.

/글 이태현

윤석남(b.1939)

1939년 만주에서 출생하였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는 40대에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와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여성작가로는 처음으로 <제8회 이종섭 미술상 1996>을 수상하였고 <윤석남>(대구미술관 2023)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전과 2014년 광주비엔날레, 199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특별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근 <제23회 이인성 미술상 2022>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후쿠오카미술관, 대만 타이페이 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www.yunsuknam.com

박충의 *Park Chungui*

백령도는 아름다운 풍경과 순박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자 애쓴다. 그들의 일상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서, 깊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끊임없는 적응과 생존의 노력이 숨어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에서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지만, 생활의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군사적 제약은 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섬 곳곳에 설치된 군사 시설과 철책선은 항상 눈에 띄며, 군인들이 순찰을 돌며 섬의 안전을 지킨다. 이러한 군사적 분위기 속에서도 주민들은 잘 적응하며 일상을 유지해 나간다. 섬에서의 생활은 외부에서 보기에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섬과 세자매’ 작품은 13년 전 백령도를 방문했을 때 만난 조카의 딸들을 그린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공돌해변 포장마차에서 홍합과 국수를 먹고 대청도를 바라보며 공돌 위에 앉아 재잘거리던 모습을 담았다. 왼쪽에 앉아 있는 아이의 엄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인천에 살고 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쓸쓸한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작가노트

박충의(b.1962)

백령도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쳤다. 1980년대 대학 시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깊이 공감하며 리얼리즘 장르에 몰입했다. 199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도시 주변 택지개발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농촌과 철거 위기의 판자집 등을 목격하며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그림을 그렸다. 강화도로 이주한 후, 점차 사라져가는 강화도의 갯벌과 어린 시절 백령도에서 경험한 갯벌과의 관계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대지와 갯벌, 바람, 생명의 순환과 같은 자연 요소와의 관계성, 그리고 존재를 바라보는 이타적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공존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섬과 세자매
2022

한지에 아크릴릭
88x126cm



빨간 귀
2023

폴리머클레이, 알루미늄 철사, 바니쉬
9.2×2.5×2.2cm



함진 Ham Jin

폴리머 클레이라는 색깔 점토를 뒤섞어 뭉치고 누르고 펼쳐서 늘렸다가 다시 주물러 붙이는 함진 작가의 손끝에서 초소형 창조물이 – 인물, 동물, 식물, 사물, 미물, 심지어 괴물까지 – 탄생한다. 철저한 계획이나 스케치에 기반하기보다 작가의 손길이 가는 대로 대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끈적임, 흐물거림과 같은 액체성이 두드러진다. 가느다란 실타래가 색색이 뒤섞여 뭉쳐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때론 귀엽지만 어쩐지 음울하고, 양증맞다고 하기엔 그로테스크하다.

한편, 작품의 표면적 형태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작품과 관람객이 만들어내는 힘의 구도이다. 이 작은 작품들은 엄청난 기운의 폭넓은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쉽사리 몸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니 말이다. 함진 작가의 창조물들은 관람객을 끌어당기고 관람객은 어느덧 흘러 작품에 다가간다. 작기에 가능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작품들이다.

/글 이영리

함진(b.1978)

경원대학교 환경조각과를 나왔고 현재 서울 연희동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공상 일기»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초기 작업은 다양한 자연, 생활 오브제와 점토로 떠오르는 공상들을 표현했다. 작품 <애완> 시리즈를 예로 들면, 실제 ‘파리’와 점토로 만든 조그만 ‘소년’과의 이야기들을 사진과 조각 작업들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검정 점토로만 구상, 추상적 표현을 시도한 <무제 시리즈>에서는 흰색 전시장에 작은 먼지가 떠다니는 듯 보이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 점토들을 섞기도 하고 눌러서 뭉치기도 하면서 작가가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다.

© hamjin77

김태동 Kim Taedong

김태동은 도시의 주변을 탐험하고 그 경계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한다.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출 방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도시의 경계에서 마주하는 풍경, 낮과 새벽의 도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촬영한 작가의 사진은 찰나의 기록이지만 그들 삶의 궤적을 오랜 시간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Wanderer> 시리즈는 인천 연수구 고려인 밀집 지역인 함박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이다. 한국 어느 거리에도 존재하는 식당과 공원, 옷가게, 정육점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인테리어와 사물들의 배치, 사람들의 이국적인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이 이곳을 낯선 풍경으로 변화시킨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막연한 경계심을 품게 하기도 하는 다른 나라와 민족 두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는 때론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우리를 여러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했을 당시 작가는 뉴욕 플러싱의 한인 이주민과 인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일상을 병치하여, 각 도시에 내재한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화적 충돌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세계 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이다. 다른 나라, 국적, 인종의 작가들이 이곳에 한데 모여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하고 있다.

/글 이태현

김태동(b.1978)

김태동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순수파트) 학부와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개인전 <Starlight: Relics of time>(서울 유아트스페이스 2020), <PLANETES>(서울 아마도 예술공간 2019)과 단체전 <기록과 경이: 한국현대사진>(Arizona Center for Creative Photography 2023), <문명: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18) 등 국내외 여러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22 MOPS NEW TALENTS>, 한미사진미술관 2022, <제6회 아마도 사진상, 아마도예술공간> 등을 수상하였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와 출판물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2014), 호주 캔버라의 Australian National War Memorial(2018), 인천아트플랫폼(2022)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계원예술대학교 사진학과에 출강 중이다.

Wanderer-010 인천 함박마을
2022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80x103cm



حبه البركة 하바를 바라카: 씨앗의 이주를 허하라
2020

단채널 영상
2분13초



진 인이 나래 Jin Jinyi Narae

진 인이 나래의 '쿠킹 비디오' 연작은 음식과 요리를 매개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중 <حبه البركة 하바를 바라카: 씨앗의 이주를 허하라>는 이주에 관한 이야기로, 작가가 난민을 혐오하는 목소리를 접한 이후 이주와 경계, 뿌리내리기에 관한 생각을 담아 제작한 영상 작품이다. 연잎밥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세상의 모든 꽃들>은 식물의 다양한 성(性)과 생식 방법을 논하며 우리들의 성다양성을 은유하고, <(향)바이러스 주스 만들기>는 코로나 시기 불거진 자연과 인공, 안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노트

진 인이 나래(b.198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는 글과 영상, 워크숍 기획,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원적 방식으로 우리 존재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 질문해 왔다. 2012년 다른 두 예술가와 함께 아티스트그룹 'ETC(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를 결성하여 도시에 비일상적 개입을 하는 활동들을 다년간 진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촉발된 타자에 관한 고민이 각기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로 이어져 <(비)인간 모의 입법 및 사법 프로젝트>를 비롯한 관련 작업들을 했다.

@eyesearswings

장성은 Chang Sungun

장성의 작업에서 ‘순간을 포착하여 기록한다’는 사진의 매체적 특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연출’된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연극적이고 시적이다. 있을 법하지만 실체가 아닌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개성성과 가상성을 획득한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헤밍웨이의 여섯 단어 짜리 소설* 만큼이나 장성의 작품은 이미지도 제목도 간결하고 함축적이다. 즉 문학적이다.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이외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몹시 궁금해진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보는 이는 가웃할 것이다. “뭐 하는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인물과 사물의 예기치 않은 뜻밖의 조합, 비논리적이면서도 비(초)현실적인 시공간 구성,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동작과 상황들은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일상적 익숙함과 부자연스런 어색함이, 안정적 균형감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가벼운 유머와 짙은 고독이 공존하는 이 상황들에 관람객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매혹된다. “장성의 작품들은 어떤가요?” 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하게 될 것 같다. “이상하고... 아름답죠.”

/글 이영리

*For sale :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장성은(b.1978)
2006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를 졸업하고 2007년 파리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조형예술학과(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s)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to my birthday»(서울 스페이스 월링엔딜링 2022), «정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거친 짐승이다»(서울 스페이스 월링엔딜링 2019), «나는 묘사를 삼킨다»(부산 BMW Photo Space 2018), «Writing Play»(서울 아마도예술공간 2016) 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4년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2008년 파리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삼성리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24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The Friendliest*»
2024. 07. 19-09. 29

참여작가	큐레이터
김순임	이영리, 이태현
김태동	
노진아	에듀케이터
박충의	이채리
범진용	
변웅필	공간디자이너
윤석남	금손건축
이우성	
이의재	운송 및 설치
이지영	마이컴퍼니글로벌
장성은	
정고요나	그래픽디자인
진 인이 나래	곽은정, 김보배
함진	
	인쇄
	아이드디자인
	공간조성
	아트건설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아트플랫폼 2024

수록된 글과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주관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덕
인천아트플랫폼 팀장
이영리

2024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The Friendliest》

2024. 07. 19 - 09. 29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11am - 6pm

월요일 휴관

Opening Hours

Tuesday - Sunday 11am - 6pm

Closed on Mondays

관람료

무료

Admission

Free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B)

3, Jemullyang-ro 218 beon-gil,

Jung-gu, Incheon, 22314

주최

인천광역시

Host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문화재단 - 인천아트플랫폼


Tel. +82.32.760.1000

Organiz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Incheon Art Platform (IFAC-IAP)

 inartplatform

 incheonartplatform

www.inartplatform.kr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